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

이제훈(기학연 연구위원, 중앙대(안성) 종교학 교수)

어느 신학대학원 모집광고 전면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담는 큰 그릇'

증권회사의 광고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나름 사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 신입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문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 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한 말씀에서 엿 볼 수 있습니다.(디모데후서2장20-21절)

세상이 온통 큰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라 신학대학원 모집광고조차 이렇게 닳아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뭔가 모자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것들 대부분이 '세상을 담는 큰 그릇'을 키워내는 것들일 겁니다. 반면에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끔 시험을 치르고 교회 문을 들어서서 아이들의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에 킨닝(cheating)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발버둥이 안쓰럽지만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을 담는 큰 그릇'에 대한 야망은 키워가면서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은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인문학은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취업과 관련된 실용학문이 대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윤리, 도덕을 다루는 학문은 유물처럼 되어버렸고 양심을 자극하고 흔들여 깨우는 강의는 오히려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해 폐강이 되어버립니다. 대학촌은 학생들의 혼숙이 보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대담 프로에서 동성애 입법을 주장하는 출연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대학주변에 위치한 병원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은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을 키워내지 못한 우리들의 죄의 열매를 보는 듯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은 유행병처럼 번져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왜곡된 결혼관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을 키워내지 못한 열매를 우리 사회가 거두고 있습니다.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수많은 비리와 엽힌 사건들을 보면 '세상을 담는 큰 그릇'들이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아픔들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뭔가를 담으면 더러운 그릇으로 인하여 담아둔 것 모두 더러워집니다. 작은 그릇보다 더러운 큰 그릇은 더 심각한 아픔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담는 큰 그릇'을 키워내고 싶은 열정과 함께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을 키워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세상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아보여도 깨끗한 그릇으로 이 세상의 깨어진 그릇들을 보다듬어 섬김으로 사는 이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샬롬!